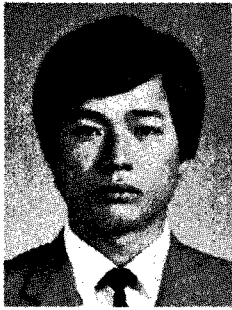


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뒤돌아 볼 때……



정홍모

(주) 화성사료 양계담당

우 리 주위에는 유달리 말 잘하는 웅변가나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이른가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상대의 진실보다는 경계함이 앞서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때가 있는데 이러한 진실성의 결여와 남을 경계하는 잘못된 사고가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서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모순된 사회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인지는 쉽사리 알 수가 없다.

「월간양계」도 이처럼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창간 19주년을 맞아 따뜻한 격려보다는 오히려 심한 꾸지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나이인 것 같다. 또한 잘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다면 과감히 실행해야 될 나이이기도 하다. 다소 번거로울 지라도 필요성이 잠재하는 일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으니 하나 하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길 바라며 언제나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한다는 각오로 진일보할 때 영원한 양계 전문지로서 확고한 자리구축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것

이다. 사실 「월간양계」를 보면서 가장 아쉽게 느낀 것은 한결같이 문제점은 잘 지적하는데 그에 대한 세부대책 및 방향책시에서는 자신이 없다는 식으로 어필하거나 거의 실현되기에는 어려운 것들로 불필요하게 문장화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과연 이런식의 막연한 대책에 생산자들이 쉽사리 따를 수 있으며 몽칠 수 있겠는가? 반면 생산자에게도 문제가 많았었다. 협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방식에서 자기 이윤에 급급하다 불황이 계속되니 이제는 「단합하자」 한다면 다시금 호황을 맞게 되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의심스럽다.

포화선상에 놓인 오늘날의 양계업…… 이제 “나”만 생각할 때는 지났다. 상호공존의 시대이며 이해와 협력이 우선되는 시대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속히 시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두가 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깊이 되새겨 바로 실천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양계